

丁若鏞의 시와 생활에 투영된 蘇軾

류 소 진*

〈目次〉

- | | |
|-------------------|--------------------|
| I. 서론 | III. 생활 방면에 투영된 蘇軾 |
| II. 作詩 방면에 투영된 蘇軾 | IV. 결론 |

I. 서론

北宋 문인 蘇軾(1036~1101)은 문학가로서뿐만 아니라 예술가나 학자로서도 발군의 재능을 발휘한 불세출의 인물로 우리나라에도 일찍부터 잘 알려져 있었다. 또한 소식의 시문집도 고려 시대에 이미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많은 고려 문인들이 그의 작품을 즐겨 읽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학습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후 우리나라 문인들의 소식에 대한 추앙심은 점점 깊어졌고 소식에 대한 학습과 추앙은 문학 방면에서만 아니라 예술·문화 등 각 방면에서 이루어져 고려 문단 전체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소식을 추앙하는 뜨거운 열기가 생겨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소식 추앙 열기는 고려 중기 이후로 문단 내에서 오래도록 사그라지지 않았음은 물론, 점차 생활과 풍속에서도 체현되어 일종의 보편적인 문화 현상을 이루게 되었으며, 고려 중기에서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약 900년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된 소식 추앙 열기가 900년 동안 늘 똑같을 수는 없었다. 각 시기별로 사회적 기풍이나 사상적 배경 등에 변화가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일어났고 그에 따라 소식이 우리나라 문단에 끼친 영향의 정도도 달랐으며, 그들이 소식을 추앙하고 학습하는 면모에도 차이가 있었다.

조선 후기 문인 丁若鏞(1762~1836)은 소식의 爲人을 폄하하거나 異端이라고 극렬하게 비판하기도 하고, 소식의 문장을 폄하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技藝論·三>에서

옛날에 소식이 경적을 고려에 주지 말고 아울러 그들이 구입하는 것도 금하기를 주청하면서, ‘오랑캐가 글을 읽으면 智慮가 높아질 것입니다’라고 했으니 어찌 그리도 마음이 좁고 은혜가 적었던가?(昔蘇軾請勿以經籍賜高麗, 竝禁其購求, 謂: ‘夷狄讀書, 長其智慮也.’, 何其狹隘而少恩哉?)¹⁾

라 하며 문물·문화 교류 방면에서 고려에 적대적이었던 소식을 옹졸하다며 비판했고, <조주비를 읽고(跋潮州碑)>에서는

소동파는 禪學에 물들어 있었으니 그 병폐의 뿌리가 왕왕 그의 문장에 드러났다..... 고명한 이가 이단에 빠져 끝내 깨닫지 못함이 어찌 이와 같은가?(蘇東坡染於禪學, 其病根往往見於其文..... 高明之陷於異端, 而終不醒悟, 何如是哉?)²⁾

라 하며 선학에 빠져 있던 소식을 이단으로 폄하했다. 또 <오학론(五學論)>에서는

한유·유종원·구양수·소식은 그들의 소위 序文·記文 등의 각종 문장이 모두 화려하기는 해도 알맹이가 없고 기이하기는 해도 바르지가 않다. 어렸을 때 그것을 읽고 혼연히 기뻐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안으로 이것으로 몸을 수양하고 어버이를 섬길 수가 없으며, 밖으로는 이것으로 임금을 잘 보좌하여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생토

1) 丁若鏞, 《與猶堂全書》(1936년 新朝鮮社刊 활자본) 卷11.

2) 丁若鏞, 《與猶堂全書》 卷14.

록 읽어 보아도 零落하여 불평을 토로한 것일 뿐 끝내 이것으로 천하와 국가를 다스릴 수는 없으니, 이야말로 吾道(儒教)를 좀먹는 해충인 것이다. (韓·柳·歐·蘇, 其所謂序記諸文, 率皆華而無實, 奇而不正, 幼而讀之, 非不欣然善矣. 內之不可以修身而事親, 外之不可以致君而牧民. 終身誦慕而落魄牢騷, 卒之不可以爲天下國家, 此其爲吾道之蠹螿也.)³⁾

라고 했으니, 이는 소식의 문장을 아주 격렬하게 비판한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소식의 위인과 그의 사상·문장 등에까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경우가 많았던 정약용도 作詩 方面에서 소식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을 뿐 아니라 그의 생활 속에도 소식이 곳곳에 투영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본고는 정약용의 시문을 통해 그가 작시 方面 및 생활 方面에서 어떻게 소식의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作詩 方面에 투영된 소식

1. 和蘇詩 창작

和韻은 처음에는 주로 동시대 문인들 사이의 교류를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나중에는 이미 죽은 옛날 사람의 시에 追和하는 기풍까지 생겼다. 고려 중기 문단 내에 소식을 추앙하는 열기가 뜨거워짐에 따라 많은 문인들이 소식의 시에 追和하여 「和蘇詩」를 짓기 시작했는데, 이는 조선 시대까지 이어졌다.⁴⁾

정약용도 화소시를 지은 문인 가운데 하나로, 현전하는 정약용의 화소

3) 丁若鏞, 《與猶堂全書》 卷11.

4) 拙稿, 《蘇軾對高麗及朝鮮漢文詩壇的影響研究》(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33-42쪽, 109-114쪽 및 拙稿, 〈韓國古代文人的「和蘇詩」〉(《中國語文學》 제 63집, 2013) 참조.

시는 14題 36首이다. 그런데 정약용의 화소시 창작 시기 및 그가 화운한 소식 원시의 창작 시기를 분석해 본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정약용의 화소시 가운데 修學期와 仕宦期의 작품은 하나도 없고 절반 이상이 流配 시기의 작품이며 나머지는 解配 이후의 작품이라는 점이다. 둘째, 그가 화운한 소식의 원시가 대부분 소식이 유배지에서 쓴 시라는 점이다. 이처럼 정약용이 유배 간 이후에 화소시를 쓰게 된 데에는 특별한 심리적 동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3,000수에 가까울 정도로 방대한 소식의 시 가운데 유독 그의 유배 시절 시에 집중적으로 화답한 것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였을 것으로 보인다. 1804년 康津 유배 중에 지은 시 <늦은 봄날 홀로 앉아서(晩春獨坐)>⁵⁾에서 “소동과의 유배지 시에 세세히 화답한다(細和東坡謫裏詩)”라고 한 말이 이러한 유추를 강력하게 뒷받침해 준다.

정약용이 처음으로 지은 화소시는 바로 첫 번째 유배지였던 長鬢에서, 소식의 <임시로 살던 집인 정혜원의 동쪽에 갖가지 꽃이 온 산에 가득한데 그 속에 해당화 한 그루가 있건만 본토인들이 귀한 줄을 몰라서(寓居定惠院之東, 雜花滿山, 有海棠一株, 土人不知貴也)>⁶⁾에 차운한 시이다. 이 시는 소식이 黃州 유배 시기에 잠시 머물렀던 정혜원에서 해당화를 보고 지은 것인데, 이 시의 말미에서 소식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陋邦何處得此花,	머나먼 땅 어디에서 이 꽃을 만날 수 있으리?
無乃好事移西蜀.	호사가가 서촉에서 옮겨 온 것 아니리?
寸根千里不易致,	한 치짜리 뿌리가 천 리에 뻗기는 쉽지 않을 터
銜子飛來定鴻鵠.	틀림없이 홍곡이 씨앗을 물고 날아왔으리.
天涯流落俱可念,	하늘 끝에서 떠도는 우리는 둘 다 가련한 신세
爲飲一樽歌此曲.	우리를 위해 술 한 잔 마시며 이 노래를 부르리.
明朝酒醒還獨來,	내일 아침 술이 깬 뒤 나 혼자 다시 오면
雪落紛紛那忍觸.	흘날리는 눈일 텐데 차마 어찌 만지리??)

5) 丁若鏞, 《與猶堂全書》 卷4.

6) 蘇軾, 《蘇軾詩集》(王文誥 輯註, 北京: 中華書局, 1987) 卷20.

해당화는 본래 소식의 고향인 촉지방에서 많이 났기 때문에, 그는 이 꽃도 자신처럼 타향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겨 그것에 자신의 감회를 깃들인 것이다. 흥곡이 씨앗을 물고 날아 온 것인지 주서식지가 아닌 먼 땅으로 와 홀로 고독하게 피어 있는 해당화를 보다가 문득 유배지로 쫓겨 와 있는 자신의 모습을 연상하게 된 소식은, 해당화나 자신이나 모두 가련한 신세라 여기고는 이에 자신들을 위해 술을 한 잔 마시며 이 시를 지은 것이다. 즉, 해당화를 보며 동병상련의 정을 느꼈다고 하겠다.

정약용은 소식의 바로 이 시에 차운하여 <우연히 시냇가에 갔다가 해당화 한 그루가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을 보고는 소동파가 정혜원에서 해당화를 읊었던 일이 생각나 드디어 그 시에 차운하다(偶至溪上, 見玫瑰⁸)—樹嫣然獨開, 因憶東坡於定惠院賦海棠花, 遂次其韻>⁹를 썼다.

自古賢聖憎多口,	예로부터 성현들이 말 많은 것 미워한 것은
苦遭讒人入左腹.	영똥한 헐뜯음을 많이 당했기 때문이네.
花心脆弱汝獨貞,	꽃은 취약한 법인데 너는 유독 꼴끗하여
脩節清標凜如竹.	굳은 절개 맑은 기상이 대나무같이 늠름하네.
紅芒綠刺謹防身,	붉은 수염 푸른 가시가 자기 몸을 방어하니
紫蝶黃蜂敢注目.	나비와 벌이 어찌 감히 눈독을 들이리?
常恐斤斧不相赦,	언제나 사정없는 도끼가 두렵나니
世路崎嶇如岷蜀.	민산의 촉도처럼 세상 길이 험하네.
吁嗟麗質秉奇芬,	아 고운 바탕에 기이한 향기를 지니고 있어
叢矢終然集一鵠.	떨기가 작아도 마침내 흥곡이 내려앉네.
樵蘇滿山豈識汝,	산을 메운 나무꾼들 너를 어찌 알까보나?
去羨臭樗枝拳曲.	구부러지고 냄새나는 가죽나무나 좋아하지.
獨立花前與花語,	꽃 앞에 홀로 서서 꽃과 얘기 나누다 보니

7) 본고에서 인용한 소식 시의 번역문은 《정본원역 蘇東坡詩集(1-3)》(蘇軾 著/柳種陸 譯註,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을 바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자구를 수정한 것임을 밝혀 둔다.

8) 自註에 “우리나라에서는 매괴를 해당화라 부른다(東俗以玫瑰爲海棠)”라고 했다.

9) 丁若鏞, 《與猶堂全書》 卷4.

兩意凄然相感觸。 쓸쓸한 둘의 뜻이 서로 느껴지는 것만 같네.

이 시에서 정약용은 소식의 원시에서와 같이 해당화의 고고함에 찬사를 보내며 자신을 여기에 빗대고는 동병상련의 정을 느끼고 있다. 일반적으로 취약한 다른 꽃들과 달리 해당화는 굳은 절개와 맑은 기상을 지닌 것이 마치 대나무 같지만, 나무꾼들은 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가죽나무나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울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자신을 해당화에 빗대고는 동병상련의 정을 느껴 꽃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 쓸쓸한 둘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만 같다고 한 것이다. 그는 이후에 이 시에 한 번 더 차운하여 〈수선화 노래로 또 소식의 운에 차운하다(水仙花歌, 復次蘇韻)¹⁰⁾를 썼는데, 이 시에서는 해당화 대신 수선화로 묘사 대상만 바뀌었을 뿐, 이 역시 해당화 시를 쓸 때와 비슷한 심리 상태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정약용은 1801년 辛酉士禍에 휘말려 형 丁若鏞과 나란히 유배길에 올랐지만 유배지가 달랐기에 형과 헤어진 후 서신으로 소식을 전하곤 했다. 평소 우애가 깊었던 정약용 형제는 유배지에서 많은 서신과 시문을 주고 받았는데, 정약용이 형에게 보낸 시 가운데 소식과 그의 동생 蘇轍이 주고 받았던 시에 차운한 시가 여러 수 있다. 그 중 정약용이 康津 유배 중에 지은 〈동과의 〈자유가 수척해졌다는 소식을 듣고〉에 화답하다(和東坡聞子由瘦)¹¹⁾라는 시를 살펴보자.

淹魚作鮓僭稱肉,	생선으로 젓을 담아 고기라 참칭하고 ¹²⁾
煮麥爲飯眞成粥.	보리 삶아 밥 지으면 정말 죽이 되지요.
三年喫此體漸羸,	이걸 삼 년 먹었더니 몸이 점점 여위어져
會生肉翅如蝙蝠.	치진 살이 박쥐의 날개처럼 되었군요.

10) 丁若鏞, 《與猶堂全書》 卷4.

11) 丁若鏞, 《與猶堂全書》 卷4.

12) 自註에 “방언으로는 물고기와 육류를 다르게 부르지 않는다(方言魚肉無異稱)”라고 했으니 물고기와 육류를 모두 ‘고기’라고 한다는 뜻이다.

況子入海鄰百蠻,	더구나 형은 바다로 가 오랑캐와 이웃하여
信鬼成殺尤荒俗.	귀신을 믿고 살생을 금하는 황당한 풍속에다
香油點滴比瓊漿,	참기름 한 방울이 경장처럼 귀하고 ¹³⁾
脯脍一臠皆珠玉.	마른 육포 한 점이 모두 다 주옥이며
海鮑有毒蛤有刺,	복어는 독이 있고 대합은 가시 돌혀 ¹⁴⁾
未及下筋肌先粟.	젓가락도 대기 전에 소름이 끼쳤군요.
半生齧肥甘老餓.	반평생 잘 먹다가 늘그막에 굶주림을 감수하니
萬事一夢蕉隍鹿.	만사가 땀나무로 사슴을 숨긴 꿈이로군요. ¹⁵⁾
峻阪鹽車氣雖摧,	비탈길에 소금 수레를 끌기는 힘들었지만
尚憶芻豆供太僕.	그래도 태복시가 풀과 콩은 대주었지요.
亂鴉紛紛得食喧,	어수선한 까마귀 떼 먹이 얻어 왁자한데
身高五尺嗟黃鵠.	아아 오척 키의 고니 신세여!

이는 시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식의 〈자유가 수척해졌다든 소식을 듣고(聞子由瘦)〉¹⁶⁾에 차운한 시이다. 소식은 惠州 유배 시절, 雷州로 유배가 있던 동생 소철이 그 지역의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인지 몸이 많이 여위었다는 말을 듣고는 동생을 위로하고자 이 시를 지었다. 정약용은 이 시의 제목에 “중씨의 편지를 받았는데 ‘육식을 못한 지가 이미 1년이 넘어 몸이 바짝 말라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라네’라고 했기에 몹시 슬퍼 이 시를 짓는다(得仲氏書云: ‘不肉食, 已歲餘, 毀瘠不可支’, 心愴然有作)”라는 自註를 붙여 시의 창작배경을 설명했다. 이 시 역시 앞의 화소시와 마찬가지로 자신과 매우 유사한 상황에서 소식이 지었던 시를 골라 화답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식과 정약용의 시 모두 형제간의 우애를 노래했다는 데에 주목해 볼 만하다. 소식·소철 형제와 정약전·정약용 형제는 공통점이 많았다. 단지 형제간의 우애가 깊었을뿐 아니라 정적들의 모함에 휘말려

13) 自註에 “중씨의 서신에 ‘이 섬에는 본래 참기름이 없다’고 했다(仲氏書云: ‘島中本無胡麻油’)”라고 했다.

14) 自註에 “흑산도에 고슴도치 모양의 조개가 있다(黑山有蝸蛤)”라고 했다.

15) 《列子·周穆王》의 蕉葉覆鹿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16) 蘇軾, 《蘇軾詩集》 卷41.

유배지를 전전했으며, 형제가 각각 다른 유배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처지마저 비슷했다. 그런데다 이 시를 지을 무렵에는 마침 유배지의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몸이 많이 여위었다는 구체적인 상황마저 딱 맞아떨어졌기에, 정약용은 형의 소식을 듣자마자 불현듯 소식의 이 시가 떠올랐던 듯하다. 그리고 동생 소철을 걱정하는 소식의 마음을 떠올려 보다가 마치 소식이 동생을 걱정하듯, 형에 대한 걱정을 담아 이 시를 쓴 것이다. 이와 같이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했던 정약용이 형에게 시를 쓰면서 여러 차례 소식의 시를 떠올리고 또 그 시에 차운까지 했던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우선, 당시 정약전·정약용 형제가 처한 상황이 소식·소철 형제와 매우 흡사했기에 정약용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던 소식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아픔을 극복하는, 일종의 정신적 치유 효과를 기대했을 것이다. 나아가 차운이라는 외형적인 장치를 통해 소식 원시와의 긴밀성을 높여, 형이 자신의 시를 읽을 때 소식의 원시를 함께 떠올리게끔 하여, 형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소철을 향한 소식의 마음만큼 애뜻하다는 것을 보다 함축적이고 선명하게 드러내려는 심리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밖에도, 정약용은 康津 유배 시절 소식의 〈동파¹⁷⁾를 읊은 여덟 수(東坡八首)〉¹⁸⁾에 차운하여 〈소장공의 〈동파를 읊은 여덟 수〉에 화답하다(和蘇長公〈東坡八首〉)〉¹⁹⁾를 지어 농경 생활에의 동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소식의 원시에는 그가 황주 유배 시절 벗의 도움으로 얻게 된 작은 땅에서 농사일을 하며 지내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시에 차운할 당시 정약용 역시 소식과 비슷하게 유배지에서 궁핍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이 시의 서문에 당시의 상황과 그의 심리가 잘 표현되어 있다. 이를 통해, 평소에도 채소밭 가꾸기를 좋아했던 정약용이 당시 비록 유배지에서 힘겹게 살고 있었지만 소식이 유배지에서 그랬던 것처럼 밭 한 뼨이라도 경작하

17) 소식은 황주 유배 시절, 황주성 동쪽에 있는 황무지를 손수 개간하여 만든 농장에 ‘東坡’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에서는 이것을 가리킨다.

18) 《蘇軾詩集》 卷21.

19) 丁若鏞, 《與猶堂全書》 卷5.

는 즐거움을 통해 비애를 극복해 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정약용이 이처럼 유배지에서 유독 소식을 많이 떠올리고 또 여러 차례 화소시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정약용의 인생역정이 소식과 많이 비슷했다는 것과 관련 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식은 다방면에서 재주가 뛰어났지만 정적들의 모함과 비방을 받아 일생의 대부분을 중국 각지에서 지방관 생활과 유배생활을 하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정약용 역시 어려서부터 영특했고 뛰어난 재주를 지녔지만 1801년 辛酉土禍에 휘말려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소식을 떠올리고 자신을 그와 동일시하려는 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다.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사람과의 동일시를 통해 자신의 아픔을 치유받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실제로 「동일시」는 문학치료의 효과 가운데 하나로 치유의 일차적 과정은 타자가 경험한 괴로운 트라우마에 독자가 자기 감정을 이입함으로써 「同類療法」의 효과를 얻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⁰⁾ 정약용의 경우에도 자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었던 소식의 시를 읽고 더 나아가 그의 시에 추화하는 행위를 통해 더욱 깊이 감정을 이입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울분·슬픔 등을 해소 혹은 치유하고자 했던 것이라 하겠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약용의 유배 시기 화소시 창작은 문학치료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일종의 동류요법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²¹⁾

長鬢 유배 시기에 화소시를 짓기 시작한 정약용은 이후 康津으로 유배지를 옮겼다가 18년 만에 해배되었는데, 해배 이후에도 계속하여 화소시를 지었다. 다만 이는 유배 시기에 지은 화소시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

먼저 <채화정을 새로 지었는데 마침 권좌형이 왔으므로, 동파의 시에 차운하여 늙은이의 글 솜씨를 한 번 시험해 보다(榮花亭新成, 權左衡適至,

20) 동류요법은 동일시·공감(empathy)이라고도 한다. 변학수, 《문학치료》, 서울: 학지사, 2007, 73쪽 참조.

21) 정약용의 유배 시기 화소시에 관해서는 拙稿, <丁若鏞의 유배 시기 和蘇詩에 나타난 심리적 기제>(《中國文學》 제93집, 2017) 참조.

次韻東坡聊試老筆)>22) 가운데 <다섯 번째 차운하다(五疊)>를 보자.

別來門館多悲風,	헤어진 뒤 내 서재엔 구슬픈 바람만 불었는데
二十二年今始同.	스물 두 해 만에 이제야 한데 모였네.
適此良辰煙景美,	이 좋은 계절 만나 경치가 아름다운데
蕉尾舒綠榴綻紅.	파초가 푸르름 펼치고 석류꽃이 빨갱게 피네.
我如老蠹將就繭,	나는 늙은 누에처럼 곧 고치 속으로 들어갈 테고
子亦未幾終成翁.	자네도 얼마 안 가 늙은이가 되겠네.
章句之腐詩之癖,	진부한 문장을 짓고 시를 쓰는 버릇은
二者不類皆不中.	둘이 서로 다르지만 모두 적절치 않네.
.....
斂華須報桑榆日,	화려함 거두어 만년에 부합하게 해야 하리니
老夫此語由衷發.	늙은이의 이 말은 충심에서 나온 것이라네.

이 시의 소식 원시는 황주 유배 시절에 지은 <안국사에서 봄빛을 찾아(安國寺尋春)>23)이다. 이 시에서 소식은 안국사에 놀러 나가 그 일대의 봄빛을 구경한 후 옛날에 開封에서 봄놀이하던 일을 떠올리며 唐代 시인 盧仝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그에 비견될 만한 자신의 처지를 가련하게 여겼다. 그런데 정약용이 이 시에 추화한 화소시의 주된 내용은 그가 오랜 만에 권좌형과 만난 이야기 및 권좌형을 향한 충심 어린 조연 등으로 이루어져, 소식의 원시와는 내용상 별로 연관이 없다.

다음으로 <석림 이예경(노화)이 달밤에 찾아왔기에, 소동파의 <정혜원에 서 달밤에 걸어 나가다>에 차운하다(石林李禮卿(魯和)月夜來訪, 次韻蘇東坡定慧院月夜步出)>24)를 보자.

雪後山閣懸孤月,	눈 온 뒤에 산속 누각에 외로운 달이 걸렸나니
一年無多此清夜.	일 년 중에 이렇게 맑은 밤은 많지 않을 것이네.

22) 丁若鏞, 《與猶堂全書》 卷7.

23) 《蘇軾詩集》 卷20.

24) 丁若鏞, 《與猶堂全書》 卷7.

獨與兒子步簷前,	나 홀로 아이와 함께 처마 앞을 거닐자니
會有佳客來松下.	마침 반가운 손님이 소나무 아래로 찾아왔네.
.....
西隣參奉胡不歸,	서쪽 이웃의 참봉은 어찌 아니 돌아오나?
議作移文備嘲罵.	〈北山移文〉 지을 일 논의하여 책망에 대비하려는데.

이 시의 소식 원시는 <정혜원에 잠시 살 때 달밤에 우연히 밖으로 나가다(定惠院寓居月夜偶出)>로, 소식이 황주의 정혜원에 머물 때 절 안팎을 산책하다가 느낀 감회를 노래한 것인데, 세속을 떠나 대자연 속에 은거하고 싶은 소식의 심경과 더불어 막 유배 온 사람의 공포에 찬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런데 정약용의 화소시는 이예경이 자신을 찾아와 준 것에 대한 감회를 읊으면서 현재 자신들의 상황을 묘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역시 소식 원시와는 내용상 특별한 연관이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약용이 해배 후에 지은 화소시는 유배지에서 쓴 화소시처럼 소식을 향한 직접적인 추앙과 흠모가 오롯이 반영되었다기보다는 동시대인과의 교류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더 커 보인다. 고려 및 조선 문인들의 추화시 가운데 이렇게 「以詩爲交」를 위해 고인들의 시운을 활용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밖에도, 정약용이 해배 후에 지은 다른 화소시 가운데 친한 친구 尹永億(淞翁)와 주고받은 시가 여러 수 있는데,²⁵⁾ 역시 내용상으로는 소식 원시와 특별한 연관이 없다. 더욱이 이 시들이 <與猶堂全書> 卷7에 <松坡酬酢>로 따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과 정약용이 시체에다 “송옹에게 보여 드리다(奉示淞翁)”라는 말을 덧붙여 놓은 점으로 볼 때, 그가 소식의 시를 「以詩爲交」의 수단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시 말해, 이는 정약용이 윤영희와 시를 주고받으면서 소식의 시운을 활용한 것으로, 동시대

25) <6월에는 꽃이 없는데, 무궁화만 홀로 피어 느낌이 일게 하는지라, 갑자기 정혜원의 해당화를 읊은 소동파의 시에 차운하여 송옹에게 보여 드리다(六月無花, 唯木槿擅場, 使人感念, 率爾有作, 遂次東坡定惠院海棠韻, 奉示淞翁)>, <오랜 비에 곡식이 상하는지라, 오랜 가뭄 끝에 많은 비가 내린 것을 읊은 소동파의 시 세 수에 차운하여 송옹에게 보여 드리다(久雨傷稼, 次韻東坡久旱甚雨之作三首, 奉示淞翁)> 등이 있다.

문인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화소시를 쓴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실제로 정약용이 윤영희에게 이 시를 써 준 후에, 윤영희가 같은 운자로 차운하여 정약용에게 답시를 보내기도 했다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해준다.²⁶⁾

이렇게 볼 때, 정약용의 화소시는 시기별로 크게 유배 시기의 작품과 해배 이후의 작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배 시기에는 소식과의 정신적 교류를 통해 유배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해배 이후에는 동시대 문인들과의 교류를 위해 화소시를 지었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어디에 목적을 두었든 이러한 화소시의 창작은 정약용이 소식의 시를 즐겨 읽고 좋아한 증거임에 틀림없다.

2. 소식 관련 典故의 활용

정약용은 유배 시절 아들들에게 자주 편지를 보내 소식을 전하면서 때때로 학문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기도 했다. 강진에서 유배 중이었던 1808년 겨울에 보낸 편지에서는 아들에게 학문의 자세와 방법에 대해 어떤 책을 어떻게 공부하라고 세세하게 조언해 주기도 했는데, 그 중 作詩에 있어서의 用事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 바 있다.

杜甫의 시는 용사에 흔적이 없어서 읽어보면 마치 스스로 지어낸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근본이 있는바, 이것이 그가 詩聖이 된 까닭이다. 韓退之(韓愈)의 시는 字法은 모두 근본이 있지만 句語는 스스로 지어낸 것이 많은데, 이것이 그가 大賢이 된 까닭이다. 蘇子瞻(蘇軾)의 시는 구절마다 용사했는데, 흔적이 남아 있어 얼핏 보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반드시 이리저리 고찰하고 조사해서 그 근본을 캔 뒤에야 겨우 그 뜻을 알 수 있으니, 이 점이 바로 그가 박식한 선비가 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식의 시는 우리 삼부자의 재주로는 반드시 평생토록 공을 들여야

26) 윤영희(송옹)가 정약용에게 보낸 화답시로는 〈무궁화를 읊은 열수(정약용)의 시에 화답하다(和澗水詠木槿花)〉, 〈오랜 비에 곡식이 상한 것을 읊은 열수(정약용)의 시에 차운하다(次韻澗水久雨傷稼)〉 등이 있다.

비로소 고니를 조각하려다가 짐오리를 조각하게 되는 것처럼 비슷하게 흉내나마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할 만한 일이 많으니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시를 지움에 있어 용사를 전혀 하지 않고 음풍농월하거나 바둑과 술을 이야기하면서 겨우 압운만 할 줄 안다면 이는 서너 집 모여 사는 마을의 시골 훈장 시이다. 앞으로 짓는 시는 반드시 용사를 주로 해야 할 것이다.(杜詩用事無跡, 看來如自作, 細察皆有本, 所以爲聖. 韓退之詩, 字法皆有所本, 句語多其自作, 所以爲大賢也. 蘇子瞻詩, 句句用事, 而有痕有跡, 譬看不曉意味, 必也左考右檢, 探其根本, 然後僅通其義, 所以爲博士也. 乃此蘇詩, 以吾三父子之才, 須終身專工, 方得刻鵠. 人生此世, 可爲者多, 何可爲此乎? 然全不用事, 吟風詠月, 譚某說酒, 苟能押韻者, 此三家村裏村夫子之詩也. 此後所作, 須以用事爲主.)²⁷⁾

그는 이렇게 이론상으로 用事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음은 물론, 실제로 자신이 시를 지을 때 이를 적용하기도 했는데, 그 가운데 소식 관련 전고를 활용한 예가 많다.

우선, 정약용이 소식 시의 참신한 표현을 차용한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차운을 이미 다해도 회포가 다 풀리지 않는지라 또 이것을 써서 보충하다(次韻既盡, 懷不能已, 又書此足之)〉²⁸⁾의 전반부에서

少時歡會老西東,	젊었을 때 기쁘게 모이다 늙어서는 동서로 흩어져
往事尋思一夢空.	지난 일을 생각해 보니 한바탕 공허한 꿈이로다.
霜後音書遲旅雁,	서리 내린 뒤 소식 전할 기러기는 더디 오고
雪中指爪香飛鴻.	눈 속에 발자국 남긴 기러기는 아득하다.

라고 한 것은, 소식이 〈면지에서 옛날 일을 생각한 자유의 시에 화답하다(和子由澠池懷舊)〉²⁹⁾라는 시의 전반부에서

27) 〈연아에게 보내다(寄淵兒)〉(丁若鏞, 《與猶堂全書》 卷21)

28) 丁若鏞, 《與猶堂全書》 卷7.

29) 《蘇軾詩集》(王文誥 輯註, 北京: 中華書局, 1987) 卷3.

人生到處知何似, 정처없는 우리 인생 무엇 같을까?
 應似飛鴻踏雪泥. 기러기가 눈발 위를 배회하는 것 같으리.
 泥上偶然留指爪, 진흙 위에 어쩌다가 발자국을 남기지만
 鴻飛那復計東西. 기러기 날아간 뒤엔 행방을 어찌 알리?

라고 한 것에서 연유했다. 눈이 내린 뒤 눈 덮인 땅 위에 기러기가 내려와서 발자국을 남기지만, 날아가 버리고 나면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알 수 없다. 심지어 눈이 다 녹아 기러기 발자국마저 다 사라져 버리고 나면, 사람들은 기러기가 내려왔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게 된다. 사람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누군가 머물다 떠나고 나면 잠깐 동안은 그 사람을 그리워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그 사람의 행방과 존재에 대해 무심해진다. 소식은 바로 이러한 人生無常을 기러기가 눈발에 발자국을 남긴 것에 비유함으로써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정약용 역시 이러한 의미를 효율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소식의 이 표현을 차용한 것이다.

다음은 〈한촌 조씨 어른이 나에게 봉황대에 먼저 가서 노닐자고 요청하므로 도중에 불렀으나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鵬村趙丈要余先遊鳳凰臺, 中路相招, 待之不至)〉³⁰⁾의 전반부이다.

木末招呼日已斜, 나뭇가지 끝으로 불러보는데 해가 이미 기울었으니
 先龍後鳳計還差. 용문사 먼저 봉황대 나중에 가려던 계획도 어긋났네.³¹⁾
 却飛要似衝風鷁, 뒤로 나는 것은 폭풍 속의 메추라기 같고
 不拔其如赴壑蛇. 뽑히지 않는 것은 구렁으로 들어가는 뱀과 같네.

이 시의 제3구는 정약용이 “메추라기는 바람을 거슬러서 날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후퇴하여 난다. 소식의 시에 보인다(鷁濫推逆風而飛, 故常自退飛, 見東坡詩)”라는 自註를 달아 밝힌 바와 같이 소식 시에서 가져온 것

30) 丁若鏞, 《與猶堂全書》 卷7.

31) 自註에 “내가 조씨 어른께 편지를 보내 ‘저는 용문사를 먼저 보고 봉황대를 나중에 가겠습니다’라 말씀드렸다(余遺趙丈書曰: ‘吾將先龍而後鳳’)”라고 했다.

이다. 소식의 시 <두 벌레(二蟲)>³²⁾에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메추라기가, 훌쩍 날아 폭풍을 따라가는 걸? 바람을 따라가며 목을 곳을 찾는데, 역풍 만나 또 숙대밭에 떨어지는 걸?(君不見, 鷓鴣堆, 決起隨衝風。隨風一去宿何許, 逆風還落蓬蒿中)”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 시에서 소식은 순풍을 타고 빠른 속도로 잘 날아가다가 갑자기 역풍을 만나 한순간에 추락하고 마는 메추라기를 생각하며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현명한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4구 역시 소식의 시에서 가져온 것으로, 守歲의 풍속에 따라 잠을 자지 않고 설날 그믐날 밤을 보내면서 일어난 감회를 노래한 <수세(守歲)>³³⁾의 제1-6구에 “끝나가는 한 해 모습 알고 싶거든, 구령으로 들어가는 뱀을 보게나. 비늘 달린 긴 몸통이 이미 반쯤 사라지면, 떠나가려는 그 마음을 누가 막으랴? 하물며 그놈의 꼬리를 묶으려 드니, 아무리 애를 쓴들 어떻게 할 수 있으랴?(欲知垂盡歲, 有似赴壑蛇, 修鱗半已沒, 去意誰能遮。況欲繫其尾, 雖勤知奈何?)”라고 했다. 소식은 여기에서 아무리 잘 묶어놓아도 결국은 끈에서 빠져 나와 구령 속으로 들어가고야 마는 뱀에다 세월의 흐름을 비유했는데, 표현이 재미있고 기발하다. 정약용의 “不拔其如赴壑蛇”라는 시구는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다음으로, 정약용은 시를 지을 때 소식의 시구를 조절하여 자신의 시구로 삼기도 했다. <영보정에서 신 진사(중수)를 만나다(永保亭遇申進士(宗洙))>³⁴⁾의 마지막 두 구절에서

庶從詞伯後, 바라건대 문호의 뒤를 이어서
題滿浙東詩. 절동 땅을 가득 채울 시를 쓰고 싶구나.

라고 했는데, 이는 소식의 <수주 보본선원의 동향인 주지승 문장로(秀州報本禪院鄉僧文長老方丈)>³⁵⁾에서 나온 것이다.

32) 《蘇軾詩集》 卷8.

33) 《蘇軾詩集》 卷4.

34) 丁若鏞, 《與猶堂全書》 卷2.

師已忘言眞有道, 스님은 말을 잊었으니 참으로 도가 닦인 것인데
 我徐搜句百無功. 나는 시구를 찾는 일 말고는 아무런 공도 없으니
 明年採藥天台去, 내년엔 약초 캐러 천태산에 가시고 나면
 更欲題詩滿浙東. 시를 지어 절동 땅에 넘치게 할 마음 더 많이 나겠네.

후반 2구는 문장로가 천태산으로 들어가 득도하고 나면 자신은 그리움을 못 이겨 수없이 많은 시를 지어 그에게 보내고 싶어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정약용은 “更欲題詩滿浙東”이라는 시구에서 “更欲” 두 글자를 빼고 시어를 재배치하여 “題滿浙東詩”라는 새로운 시구를 만들었다. 이로써 당시 소식이 그랬던 것처럼, 정약용 자신도 진사 신종수 같은 문호의 뒤를 이어, 시를 많이 쓰고 싶은 심경을 토로한 것이다.

〈가을에 사형을 그리며(秋日憶舍兒)〉³⁶⁾에는

造物眞豪縱, 조물주는 참으로 호방하고 자재롭군요³⁷⁾
 山河恁地寬. 산과 강이 이처럼 넓으니까요.

라는 시구가 있는데, 정약용이 “造物眞豪縱”에 自註를 달아 “동파의 구절이다(東坡句)”라고 직접 밝힌 바와 같이 소식의 시구를 차용한 것이다. 소식은 〈외사촌 형 정보와 함께 백수산을 유람하다(同正輔表兄遊白水山)〉³⁸⁾에서 산의 모습을 형용하며 “위대하도다 조물주는 참으로 호방하고 자재롭구나, 흙 다지고 모래 몽쳐 이 장난을 했구나(偉哉造物眞豪縱, 攬土搏沙爲此弄)”라고 했는데, “偉哉造物眞豪縱”에서 “偉哉” 두 글자만 생략한 것이다.

또 정약용의 시에는 소식 관련 고사를 전고로 활용한 경우도 적지 않다. 〈자식에게 보내다(寄兒)〉³⁹⁾라는 시를 보자.

35) 《蘇軾詩集》 卷8.

36) 丁若鏞, 《與猶堂全書》 卷4.

37) 自註에 “동파의 시구이다(東坡句)”라고 했다.

38) 〈同正輔表兄遊白水山〉(《蘇軾詩集》 卷39)

休嗟世降無巢谷, 세상이 야박해서 소곡이 없다 한탄하지 말아라
 羞喜門衰有蔡沈 가문은 쇠락해도 채침이 있어 좀 기쁘구나.

소곡은 宋代 眉山 사람으로 소식과 동향 사람이다. 소식이 黃州에 유배 중일 때 소곡이 그를 찾아와서 함께 지낸 적이 있었으며, 나중에 소식이 海南으로 유배 가자 소곡은 또 소식을 찾아 해남으로 떠났는데 도중에 新州에서 병으로 죽었다.⁴⁰⁾ 채침은 蔡元定の 아들이며, 朱熹의 제자였다. 그의 아버지 채원정은 당시 학자들이 잘 모르는 洪範의 數에 관하여 자기 혼자 깨닫고는 있었으나 미처 論著를 못하고는, “내 뒤를 이어 내 학설을 완성시킬 사람은 沈일 것이다”라고 했고, 그의 스승 주희는 늘그막에 《書經》의 傳을 쓰려다가 못하고 역시 채침에게 그 일을 부탁했다.⁴¹⁾ 이 시는 정약용이 康津 유배 중에 지은 것으로, 소곡과 채침은 각각 추종자와 후계자의 의미로 쓰였다. 유배지까지 찾아와 주는 벼이 있었던 소식과 달리 정약용은 그런 벼이 없는 각박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채침과 같은 자식이 있어 자신의 뜻을 이어줄 수 있어 그것이 기쁘다고 노래한 것이다.

〈가을에 사형을 그리며(秋日憶舍兄)〉⁴²⁾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陶令何譏子, 도 현령은 어찌하여 자기 아들을 나무랐을까요?
 蘇家本譽兒. 소씨 집안에서는 본래 아들을 명예롭게 했는데요.

앞 구절은 陶淵明이 평소 못난 아들들을 못마땅해 하며 나무랐던 것을 말하며,⁴³⁾ 뒷 구절은 소식의 아버지 蘇洵이 아들 소식과 소철에게 이름을 지어 주면서 그럴 듯하게 의미를 부여한 것을 가리킨다.⁴⁴⁾

39) 丁若鏞, 《與猶堂全書》 卷4.

40) 《宋史》 卷459 〈巢谷傳〉 참조.

41) 《宋史》 卷434 〈蔡沈傳〉 참조.

42) 丁若鏞, 《與猶堂全書》 卷4.

43) 도연명의 〈아들들을 나무란다(責子)〉 참조.

다음은 <삼가 내직으로 전보하라는 명이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해질 무렵 금정역을 떠나다(伏聞內移有命, 晚發離金井驛)>⁴⁵⁾라는 시이다.

夕陽騎馬出官門,	해 질 녘에 말을 타고 관가의 문을 나서는데
官柳依依似故園.	관가 버들 하늘하늘 마치 고향 같구나.
野水相隨行十里.	시냇물을 벗 삼아 십 리를 가니
峽雲初盡見孤村.	산골 구름 막 끝나자 외로운 마을 보이네.
窮居久厭喧囂俗.	궁벽한 데 살다 보니 시끄러운 세속 싫어진 지 오래라
榮召猶懷放逐恩.	영예롭게 부르셨는데 내쫓으신 은혜가 오히려 그럽네.
鼓角黃州眞有戀,	황주에서 울린 고각 소리에 참으로 아쉬움 생겼나니
茲懷唯與子臆論.	이러한 마음은 오직 소자첨과 논할 수 있으리.

이 시는 1795년 12월 23일에 지은 것으로, 정약용은 이해 7월 지방관에 보임되어 충청도 금정찰방으로 있다가 이해 12월 즉, 이 시를 쓰던 무렵에 다시 서울로 올라오라는 명을 받게 되었다. 지방관으로 있다가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기뻐야 마땅하지만 한편으로는 한동안 머물던 곳을 떠나게 되어 아쉬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 구에서 이러한 마음을 오직 소식과 논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바로 소식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었기 때문이다. 1084년 황주에서 유배 중이던 소식은 責授檢校尚書祠部員外郎汝州團練副史本州安置의 명을 받고 황주를 떠나게 되었다. 떠나기 직전에 <장강을 건너 밤에 무창의 산을 걸어가다가 황주에서 나는 북소리와 빨피리 소리를 듣다(過江夜行武昌山, 聞黃州鼓角)>⁴⁶⁾를 지어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清風弄水月銜山,	산들바람은 물장난 치고 달은 산에 물렸는데
幽人夜度吳王峴.	은자는 밤중에 오왕현을 넘어간다.

44) 소순의 <두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이야기(名二子說)> 참조.

45) 丁若鏞, 《與猶堂全書》 卷2.

46) 《蘇軾詩集》 卷23.

黃州鼓角亦多情,	황주에서 울리는 고각 소리도 다정하게
送我南來不辭遠	멀다고 마다 앓고 남쪽으로 나를 전송한다.
.....
他年一葉派江來,	훗날 내가 일엽편주로 강을 거슬러 올라올 때
還吹此曲相迎餞	이 곡을 다시 불어 나를 맞고 또 보내렷다.

여기에서 소식은 장강을 건너 밤에 무창 지방의 산을 지나가다가 문득 들려온 황주의 북소리와 빨피리 소리를 듣고 떠나기 싫은 아쉬운 마음과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을 노래했다. 이 시보다 먼저 지은 <황주와 작별하다(別黃州)>에서 “강호에서 늙을 생각 끝내 버리지 않을 테니, 다시 올 때 친구들이 잘못되게 하지 말길(投老江湖終不失, 來時莫遣故人非)”이라 하며 나중에 다시 황주로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비록 유배지였지만 오래 지내다 보니 정도 들고, 또 시끄럽고 번잡한 세속을 떠나 은거하듯 지냈던 시간이 그리울 것 같아 이런 시를 읊었던 것이다. 당시 소식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정약용은 바로 이 고시를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심리 상태를 보다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임에 틀림없다.

다음은 <초당 정미원이 오다(楚堂鄭美元至)>⁴⁷⁾라는 시이다.

本無米嶽詩書畫,	미악의 시서화 재주는 본디 내게 없었거니와
敢比東坡笑罵嬉.	웃고 욕하는 것 모두 읊은 동파의 재주에 감히 견주리?

미악은 宋代의 명필 米芾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에게 海嶽外史라는 호가 있어서 당시 사람들이 米嶽이라 불렀는데 그는 시·글씨·그림에 모두 뛰어났기에⁴⁸⁾ “本無米嶽詩書畫”라 한 것이다. 宋代 문인으로 蘇門四學士 가운데 한 명이었던 黃庭堅은 <東坡先生眞贊> 其一에서 “동파의 술, 적벽의 피리, 비웃고 조롱하고 화내고 욕하는 갖가지 감정, 이 모두가 문장이 되었다(東坡之酒, 赤壁之笛, 嬉笑怒罵, 皆成文章)”라고 했는데 정약용은

47) 丁若鏞, 《與猶堂全書》 卷6.

48) 《宋史》 卷444 <米芾傳> 참조.

이 말을 떠올리며 자신의 詩才가 소식만 못하다고 한 것이다.

이 밖에도, “백학관의 물 흐르는 소리는 절로 좋건만(鶴觀水流聲自好)”⁴⁹⁾, “동과 늪은이 풍치 많음은 일찍이 알았지만, 혹시 따라갈 수는 없을지 몰라도 어찌 생각도 없으리?(夙知坡老風情厚, 容不能從肯憶無?)”⁵⁰⁾, “이로 인해 소자침의 반룡시를 외우니, 천고 전의 일 생각으로 감개가 무량하네(爲誦子瞻蟠龍句, 感念千古情悠悠)”⁵¹⁾, “장차 <획리가>를 지으려고 한다(將成畫鯉歌)”⁵²⁾, “그대여 <획어가>”⁵³⁾를 거듭 불러 주게나(願君重唱畫魚歌)”⁵⁴⁾ 등 소식 관련 전고를 활용한 예가 많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시를 지을 때 用事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걸핏하면 중국의 일을 인용하는 것 역시 저급한 품

- 49) <앞의 운을 세 번째 사용하다(三疊)> 가운데 <시원한 대자리에서 바둑 두기(清簾奕棋)>(丁若鏞, 《與猶堂全書》 卷6). 소식의 시 <바둑 구경(觀棋)>(《蘇軾詩集》 卷41) 序文에 “나는 여태 바둑을 둘 줄 모른다. 일찍이 혼자 여산의 백학관을 유람하다 백학관 안의 사람들이 모두 문을 닫고 낮잠을 잘 때 혼자 소나무 고목 밑으로 흐르는 물가에서 바둑 두는 소리를 듣고는 마음속으로 혼연히 기뻐한 적이 있어 이때부터 한번 배워 보려고 했으나 끝내 바둑을 둘 줄 모른다(予素不解棋, 嘗獨遊廬山白鶴觀, 觀中人皆闔戶晝寢, 獨聞棋聲於古松流水之間, 意欣然喜之, 自爾欲學, 然終不解也)”라고 했다.
- 50) <밤에 누워 있자니 무료하기에 장난삼아 절구 열 수를 지어 울직한 마음을 풀다(夜臥無聊戲爲十絕以抒幽鬱)>(丁若鏞, 《與猶堂全書》 卷6)
- 51) <학연에서 동으로 보니 깎아지른 절벽이 입을 딱 벌리고 있고 그 속에서 시냇물이 뿜어져 나오니 여기가 바로 오른동 입구이다. 시내를 따라 돌아 들어가 관적사 앞의 동굴 입구를 지나서 절 뒤의 높은 재를 따라 절에 오르니 힘이 다 빠지고 날도 이미 저물었다(自鑿淵東見, 峻壁呀開, 溪流噴出, 茲乃五倫洞口也, 緣溪轉入, 却過觀寂寺洞口, 從寺後峻嶺上寺, 筋力遂倦, 日色已晚)>(丁若鏞, 《與猶堂全書》 卷3)
- 52)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신 학사 형제에게 다시 부치다(對雪重寄申學士兄弟)>(丁若鏞, 《與猶堂全書》 卷7)
- 53) 소식의 <畫魚歌>는 소식이 杭州에서 湖州로 가는 도중에 겨울을 맞아 물이 빠진 강에서 주민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광경을 보고 지은 것으로, 유능한 인재를 조정에서 다 쫓아내버린 신법파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숨겨져 있다.
- 54) <밤에 누워 있자니 무료하기에 장난삼아 절구 열 수를 지어 울직한 마음을 풀다(夜臥無聊戲爲十絕以抒幽鬱)> 其十(丁若鏞, 《與猶堂全書》 卷6)

격이다. 반드시 《삼국사》·《고려사》·《국조보감》·《여지승람》·《징비록》·《연려술》 및 기타 우리나라의 문헌들을 취하여 그 사실을 채집하고 그 지방을 고찰해서 시에 넣어 사용한 뒤에야 세상에 명성을 얻고 후세에 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我邦之人, 動用中國之事, 亦是陋品, 須取《三國史》·《高麗史》·《國朝寶鑑》·《輿地勝覽》·《懲毖錄》·《燃藜述》及他東方文字, 採其事實, 考其地方, 入於詩用, 然後方可以名世而傳後.)⁵⁵⁾

라며 중국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을 전고로 사용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가 시를 지음에 있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소식과 관련된 전고를 다양하게 사용한 것은 그가 그만큼 소식을 좋아했고 아울러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라 하겠다.

Ⅲ. 생활 방면에 투영된 蘇軾

作詩 방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약용의 생활 속에도 곳곳에 소식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우선, 〈가을밤 홀로 앉아 있는데 이웃 사람이 고깃국을 가져와 술을 권하기에 흔연히 한 번 취하다(秋夜獨坐, 隣人餽魚羹以侑酒, 欣然一醉)〉⁵⁶⁾ 라는 시를 보면

酌我東坡眞一酒, 나에게 동파의 진일주를 권하기에
嚙君西蜀自然羹. 그대가 준 서촉의 자연갱을 마시네.

라고 하며, 동파의 진일주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소식은 〈진일주를 노래한 시와 그 서문(眞一酒并引)〉·〈진일주 노래(眞一酒歌)〉 등의 시에서 진일주에 대해 노래했는데, 그 중 〈진일주를 노래한 시와 그 서문(眞一酒并

55) 〈연아에게 보내다(寄淵兒)〉(丁若鏞, 《與猶堂全書》 卷21)

56) 丁若鏞, 《與猶堂全書》 卷4.

引))57)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撥雪披雲得乳泓,	눈을 걷어내고 구름을 헤쳐 맑은 젖을 얻으니
蜜蜂又欲醉先生.	꿀벌들이 또 선생을 취하게 하려 하네.
稻垂麥仰陰陽足,	벼는 고개 숙이고 보리는 고개 들어 음양을 잘 이루고
器潔泉新表裏清.	그릇 깨끗하고 샘물 신선하니 안팎이 모두 맑네.
曉日著顏紅有暈,	새벽 해가 떠올라 얼굴에 붉게 햇무리 생기고
春風入髓散無聲.	봄바람이 뺨속에 들어와 소리 없이 흩어지네.
人間真一東坡老,	인간 세상의 진솔하고 한결같은 동파 노인이
與作青州從事名.	청주종사에게 진일주라는 이름 하나 지어 주노라.

소식은 평소 음식에 관심이 많았을 뿐 아니라, 음식 만드는 재주도 있어 직접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기도 했는데, 이 시의 서문에서 “쌀·보리·물 등 세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진 것, 이것이 동파 선생의 진일주이다(米麥水三一而已, 此東坡先生真一酒也)”라고 스스로 양조 방법을 설명한 바와 같이, 진일주는 소식이 직접 담근 술이다. 위에 인용한 정약용의 시는 1801년 長鬚 유배 중에 지은 것인데, 그가 술을 마시면서 굳이 ‘東坡真一酒’라고 한 것은 유배 시절의 소식을 떠올리며 자신을 소식에 견주어 보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해미에서 유배 중에 지은 잡시(海美謫中雜詩)>58) 其四이다.

非是東坡別嗜蠶,	소동파만 특별히 굴 좋아하는 것 아니오
朝盤蜜啣有誰饜.	아침 밥상 밀죽이야 누가 탐내리?59)

57) 《蘇軾詩集》 卷39.

58) 丁若鏞, 《與猶堂全書》 卷1.

59) 唐 張鷟, 《朝野僉載》 卷2에 “영남의 요족 백성들은 밀죽을 잘 만든다. 아직 눈도 깜빡이지 못하고 온몸이 빨간 상태로 꿈틀거리는 것 태어난 쥐에게 꿀을 먹인 뒤 그것을 못으로 연회 자리에 박아 놓는데 그러면 그것이 식식거리며 도망가려고 한다. 이것을 젓가락으로 집어 먹으면 짹짹 하고 소리를 내기 때문에 밀죽이라 부른다(嶺南獠民好爲蜜啣, 卽鼠胎未瞬·通身赤蠕者, 飼之以蜜, 釘之筵上, 囁囁而行, 以筯挾取啖之, 啣啣作聲, 故曰蜜啣)”라고 했다. 소식은

石花新自星淵至, 방금 성연으로부터 굴이 왔는데
浦麥黃時味更高. 갓가 보리 누럴 때라 맛이 더욱 좋겠네.

정약용은 1790년 3월 8일에 해미로 유배 갔다가 19일에 풀려났는데, 비록 짧은 기간이기는 했지만 해미의 향토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고생하고 있다가 마침 성연으로부터 굴이 와서 반가운 마음을 토로한 것이다. 제1구는 소식이 해남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굴을 즐겨 먹었던 고사를 가져 온 것이다.⁶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굴을 먹으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소식도 굴을 좋아한 일을 떠올리고는 그 전고를 활용함으로써 자신을 소식에 빗대어 자신도 소식처럼 별 탈 없이 유배 생활을 견뎌 낼 수 있을 것이라 자위하고 싶은 심리를 더욱 함축적으로 드러냈다.

다음은 <장난삼아 소계도를 그려 보다(戲作菖溪圖)>⁶¹⁾라는 시이다.

子瞻謫南海, 소자점이 남해에서 귀양살이 할 적에
愈疾峨嵋圖. 아미도 그림으로 병을 고쳤다가에
我今欲畫菖溪看, 나도 지금 소내를 그려 놓고 보려 하나
世無畫工將誰摸. 세상에 화공 없으니 누구더러 그리라 하리?

惠州로 유배 갔을 때 이 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자유가 수척해졌다는 소식을 듣고(聞子由瘦)>(《蘇軾詩集》 卷41)에서 “옛날에는 밀죽이란 말만 들어도 토했는데, 습속에 젖어 이제는 차츰 두꺼비도 가까이하네(舊聞蜜唧嘗嘔吐, 稍近蝦蟇緣習俗)”라고 했다.

60) 清 吳升의 《大觀錄·蘇文忠公法書卷五》(中國基本古籍庫에 수록된 民國九年 武進李氏聖譚慶鉛印本) <獻鱉帖>에 “기묘년(1099) 동지 이틀 전에 바닷가 사람들이 굴을 바치는지라 그것을 쪼갠더니 몇 되가 되었다. 고기와 즙액을 물에 넣고 술과 함께 삶아서 먹었더니 매우 맛있었으나, 일찍이 없던 것이었다.…… 늘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아들 과에게 주의를 주었으니 북방의 군자들이 들으면 다투어 이 소동과가 한 것을 함으로써 해남도로 유배 와서 나의 이 맛을 나누어 가질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己卯冬至前二日, 海蠻獻鱉, 剖之得數升. 肉與漿入水, 與酒並煮, 食之甚美, 未始有也,…… 每戒過子慎勿說, 恐北方君子聞之, 爭欲爲東坡所爲, 求識海南, 分我此美也)”라는 일화가 수록되어 있다.

61) 丁若鏞, 《與猶堂全書》 卷4.

試點水墨作粉本,	시험 삼아 수묵으로 초벌 그림 그려 보니
墨痕狼藉如鴉塗.	수묵 자국 낭자하여 까마귀를 그린 듯하더니
粉本屢更手漸熟,	초벌 그림 몇 번 고치자 점점 손에 익었지만
山形水色猶模糊.	산과 강의 형색이 여전히 흐릿하네.
唐突移描上絹面,	겁도 없이 비단 천에 옮겨 그려서
掛之客堂西北隅.	응접실 서북쪽의 모퉁이에 걸어 뒀네.
.....
松檜蔭門吾亭也,	솔과 편백이 문에 그늘을 드리운 곳이 우리 정자요
梨花滿庭吾廬乎.	배꽃이 정원에 가득한 곳이 우리 집인데
吾廬在彼不得往,	우리 집이 저기 있건만 갈 수 없으니
使我對此空踟躕.	나로 하여금 이것을 보며 공연히 서성대게 하네.

당시 정약용은 長鬢에 유배 중이었는데 고향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는 예전에 소식이 남해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그의 고향에 있던 峨眉山을 그려 그것을 보며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떠올라, 자기 고향의 소내를 그려 보고자 했지만 그것을 그려 달라고 부탁할 화가가 없는지라, 결국 스스로 그림을 그려 놓고 그것을 보며 고향이 그리운 마음을 달랬다고 했다. 소식이 유배지에서 썼던 방식을 본받아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보고자 했던 정약용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정약용은 술을 마실 때나 글을 먹을 때 소식을 떠올리기도 했고, 소식을 본받아 고향 풍경을 그려 놓고 보면서 향수를 달래기도 하는 등 그의 일상 생활 속에 언뜻언뜻 소식의 생활이 투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식의 그림자는 정약용의 일상 생활보다 풍류 생활에 더욱 짙게 드리워졌다. 정약용은 평소 뱃놀이를 하며 풍류를 즐겼는데, 이때 소식의 〈赤壁賦〉와 그 속에 묘사된 赤壁船遊를 연상하곤 했다.

소식은 황주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황주성 서쪽 산기슭의 「赤壁」이라 불리는 곳을 좋아하여 틈만 나면 그곳에 나가 놀다가 詩賦나 詞를 짓고는 했는데, 1082년 7월 16일 밤에는 손님들과 함께 적벽 아래에 배를 띄워 놀다가 〈赤壁賦〉를 지었다. 소식은 이 작품 안에 삼라만상의 이치와 인생

의 철리를 속속들이 담아냈는데, 그중에서도 정치적 실의와 꺾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극복한 후의 달관한 태도가 돋보인다. 소식은 또 이로부터 석 달 뒤인 이해 10월 15일 밤 한 차례 더 배를 띄워 노닐다가 〈後赤壁賦〉를 짓기도 했다. 중국문학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소식의 전·후 〈적벽부〉는 우리나라에서도 광범위하게 사랑받았다. 많은 문인들이 〈적벽부〉에 대한 극찬을 남겼을 뿐 아니라, 이를 소재로 하여 시를 쓰거나, 〈적벽부〉에 쓰인 글자를 모아 集字詩를 쓰기도 했다. 〈적벽부〉는 문학 방면에서만이 아니라 예술 방면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여 다른 예술 창작의 소재가 되기도 했는바, 적벽선유를 畫題로 삼아 赤壁賦圖를 그리기도 했고, 〈적벽부〉 원문에 토를 달아 우리말로 부르기 좋도록 만든 노래 〈적벽부〉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호방한 기개로 마치 속세를 벗어난 듯이 자유롭게 풍류를 즐겼던 소식을 향한 조선 문인들의 흠모는 급기야 그들이 직접 소식의 풍류를 본받아 적벽선유를 재연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소식과 마찬가지로 ‘임술년 칠월 기망’이라는 날짜까지 정확하게 맞춰 적벽선유를 재연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60년에 한 번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너무 컸기에 임술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임년만 맞추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칠월 기망만 맞추거나 하는 식으로 대안을 찾아, 여러 차례 적벽선유 재연을 시도했다.

정약용의 경우, 장소와 시간을 엄밀하게 따져가며 적벽선유를 재연한 것은 아니지만 그 역시 적벽선유와 유사한 풍류 생활을 즐겼다.

먼저, 아래의 시 두 수를 보자.

칠월 십육일에 삼정에서 달 뜨기를 기다리는데 저물녘에 비가 조금 내리다
(七月既望於蓼亭候月晚有小雨)⁶²

斜陽疎雨過山廬, 해거름의 성긴 비가 산집을 스쳐 지나가니
正爲今宵月驅除. 바로 오늘 밤 달을 위해 구름을 걷어 내는 것.

62) 丁若鏞, 《與猶堂全書》 卷6.

已展玻璃平鬱拂,	유리빛 이미 펼쳐 답답한 가슴 가라앉혔는데
絕無瑕玷翳空虛.	하늘을 가리는 티가 하나도 없네.
凌波一葉仙俱泛,	물결을 헤치는 일엽편주를 신선과 함께 타고 가니
迸圃三稜老可茹.	여기저기 논에 벼가 익어서 먹을 만하네.
卽看竹溪多逸士,	이건 바로 죽계의 많은 일사를 보는 것
當時簫客定何如.	당시에 통소 불던 이는 대체 어떠했을까?

조금 뒤에 여러 친구들이 함께 이르렀으므로, 배 안에서 지은 시에 화답하다(少焉諸友並至, 和其舟中韻)⁶³⁾

殘年湯沐此煙波,	남은 생애를 이 연과 속에 맡기고 나니
洛誦如今變楚歌.	글 읽는 소리가 이젠 초나라 노래로 변했네.
鐵馬遠峯沙外淨,	철마산 먼 봉우리는 모래 너머에 맑고
綠驍秋水雨餘多.	녹효강의 가을 물은 비 온 뒤에 많아졌네.
天緣點指群賢集,	하늘의 점지로 멋쟁이들 다 모였는데
人世回頭百險過.	세상을 돌아보니 온갖 험난함 겪어 왔네.
自是榮枯大平等,	본래부터 영고성쇠는 매우 평등하지만
西江風浪奈愁何.	서강의 풍광이 걱정스러운 걸 어찌하리?

위의 시 두 수는 1827년에 지은 시로, 시제를 통해 정약용이 7월 16일 즉, 기망에 맞춰 여러 친구들과 함께 달구경을 하려고 뱃놀이를 하다 위의 시 두 수를 연이어 지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날 비가 많이 왔다면 뱃놀이를 제대로 성사하지 못했겠지만 다행히 “성긴 비가 산집을 스쳐 지나가” 오히려 “오늘 밤 달을 위해 구름을 걷어 내” 주었다. 그리하여 자신들을 “신선”에 비유하고 또 “하늘의 점지로 멋쟁이들 다 모인 것”이라 하며 당시 소식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껏 풍류를 즐길 수 있었다. 굳이 기망에 맞춰 선유를 하며 달구경을 하는 모습은 소식의 적벽선유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장소가 적벽이 아니기는 하지만, 시에서 “일엽편주”·“신선”, 그리고 “당시에 통소 불던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정약용

63) 丁若鏞, 《與猶堂全書》 卷6.

스스로도 <적벽부>를 다분히 의식한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1829년에 지은 <칠월 초이튿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육방옹의 시 <초가을에 갑자기 서늘해져서>를 보고 다 함께 차운해서 속히 서늘해지기를 기원하다(七月二日甚熱, 見放翁<初秋驟涼>之詩, 因共次韻以祈驟涼)⁶⁴ 其一을 보면 정약옹이 이렇게 뱃놀이를 하며 달구경을 하는 것이 그 해로 그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시에는

老暑驅除乏勝籌,	늦더위를 몰아낼 좋은 계책이 없어
對衿單葛似重裘.	앞 터진 홑갈포가 겹가죽옷 같구나.
.....
天工變幻難測,	변화무상한 하늘을 헤아리기 어렵지만
今歲應差既望遊.	금년에는 기망 놀이 못할 것만 같구나.

라고 하며, 늦더위 때문에 「기망 놀이(既望遊)」를 못하게 될까 걱정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기망은 달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7월 2일에 시를 쓰면서 날이 더워 올해 기망 놀이를 못할까봐 걱정했다는 것은, 그가 말한 기망 놀이가 <적벽부>에서처럼 7월 16일의 뱃놀이를 제한적으로 가리켰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어찌면 정약옹이 마치 연례행사처럼 매년 7월 16일이 되면 기망 놀이를 거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1832년 가을에 쓴 <저녁에 못 위에 배를 띄우다(潭上夕泛)>⁶⁵ 가운데 其一을 보자.

江湖湖樂奈何之,	강호가 참으로 좋은 것을 어찌하리
六冕誠難換一簑.	여섯 가지 면류관도 진정 도롱이 하나와 바꾸기 어려우리.
半世客遊消瘴海,	반평생을 떠돌며 장기 어린 바닷가에서 다 보내고
晚來叟號襲煙波.	만년에 늙은이 소리 들으며 연파 속으로 돌아왔나니.
迎風未害蒼鬢醉,	바람을 맞으며 몽롱하게 취해도 무방하고

64) 丁若鏞, 《與猶堂全書》 卷6.

65) 丁若鏞, 《與猶堂全書》 卷6.

候月聊賡窈窕歌. 달을 기다리며 그럭저럭 「요조」의 노래에 화답하네.
 天賜一區湯沐地. 이는 하늘이 식읍을 한 뼤기 내려주고
 許將諸友共婆婆. 벗들과 같이 즐겁게 지내길 허락한 것이네.

제1구에서 말한 것처럼 정약용은 강호를 좋아했기에 기회가 되면 자주 뱃놀이를 하며 풍류를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시간이 나 장소를 소식의 적벽선유와 완전히 일치시키지 못했을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꼭 적벽이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풍경을 가진 곳에서 달을 구경하며 풍류를 즐기기도 했던 것 같다. 이 시에서는 7월 16일에 뱃놀이를 했다는 단서를 찾기는 어렵지만 제6구에서 “候月聊賡窈窕歌”라고 한 것을 보면 이때에도 <적벽부>를 염두에 둔 것임에 틀림없다.

1795년 부여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지은 <부여 현감 한원례(백원)와 함께 고란사 밑에서 배를 타고 자온대까지 가며 배안에서 장난삼아 읊어 원례에게 보이다(同扶餘縣監韓元禮(百源), 自阜蘭寺下汎舟至自溫臺, 舟中戲吟示元禮)>라는 시에서는 또

若把溫臺當赤壁, 자온대를 적벽으로 간주한다면
 會教丁子笑蘇郎. 정 선생이 소랑을 비웃게 할 수 있겠네.

라고 했는데, 이는 자온대 근처 백마강 일대의 풍경이 적벽만큼 수려함을 말한 것이다. 또한 자온대를 적벽으로 간주한다면 정약용 자신도 <적벽부>를 능가할 정도의 훌륭한 작품을 쓸 수 있겠다고 농담 삼아 자신의 문장 실력을 소식에 비견해 보기도 했다. 이것 역시 평소 그가 소식의 <적벽부>와 적벽선유를 많이 의식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처럼 정약용은 자주 뱃놀이를 즐겼는데 뱃놀이를 할 때면 늘 소식의 적벽선유를 떠올리며 자신의 뱃놀이를 소식의 적벽선유에 비겨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약용이 그만큼 평소에 소식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때로는 소식과 자신을 동일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IV. 결론

정약용은 평소 소식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그랬던 그에게도 作詩 方面과 생활 方面에 소식의 모습이 자주 투영되었다. 그는 소식의 시에 차운한 화소시를 적지 않게 지었고, 소식 관련 전고를 자주 시어로 활용했다. 그리고 술을 마실 때도 소식을 생각했고 곶을 먹을 때도 소식을 떠올렸으며, 소식을 본받아 고향 산천을 그려 놓고 향수를 달래기도 했다. 또한 정약용은 평소 뱃놀이를 하며 풍류를 즐겼는데, 이때 소식의 〈赤壁賦〉와 그 속에 묘사된 赤壁船遊를 연상하곤 했다.

이처럼 정약용의 시와 생활에 소식이 자주 투영된 것은 기본적으로 그가 소식의 위인과 시를 좋아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가 소식을 좋아한 것은 유배 생활에 대처한 소식의 초연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추앙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약용은 다방면에 재능이 있었지만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오랜 기간 유배지에서 생활했다는 점에서 소식과 인생역정이 매우 비슷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고려 및 조선의 많은 문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약용 역시 유배지에서 소식의 시문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고 또 그의 시에 추화하는 시 즉, 화소시를 씀으로써 소식을 본받아 자신의 마음 속에 차오르는 울분을 해소하고 비애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식은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늘 초연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소소한 기쁨을 찾아 절망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노래함으로써 비애를 지양하고자 했던 인물로 當時뿐 아니라 후대에까지도 오래도록 많은 문인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그의 감화력 있는 글은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되었다. 특히 유배지에서 마음을 나눌 사람과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던 정약용에게 소식은 바로 누구보다도 진정한 벗이 되어 주었고 그의 시문은 좋은 치료약이 되어 주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정약용에게는 소식의 이렇듯 달관한 태도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다. 그가 長鬢로 유배가는 길에 지은 〈惜志賦〉⁶⁶에서 “소자첨은 재주를 뽐냈지만 역시 폄적당

했네(瞻詔才亦遭貶)”라며 바로 소식을 떠올린 것이나, <유배 중인 여섯 분의 화상에 대한 예찬(謫中六夫子畫像贊)>⁶⁷⁾ 가운데 다섯 번째 것인 <경주 유배객 소 선생(휘 식)(瓊州謫客蘇先生(諱軾))>에서 “우뚝 솟은 저 미산이, 우러러 규성의 정기를 빨아들여, 만고의 세월 동안 기르고 길러, 비로소 한 영걸을 도해 내었네. 화려한 해학과 법도 있는 문채로, 아름다운 문장을 성내어 꾸짖으니, 세상에 둘도 없는 독보적인 참 지식에, 사람들이 너도나도 깜짝 놀랐네. 끓는 물도 화마도 없애지 못한, 번쩍번쩍 빛나는 그의 문채여!(羸彼眉山, 仰吸奎精. 亭毒萬古, 始吐一英. 嘻談彝藻, 怒罵瑤瓊. 眞知獨步, 衆愕群驚. 湯火不隕, 文采晶晶!)”라며 소식의 행적과 덕을 기린 것이 모두 이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정약용은 비록 소식의 학술·사상 등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지만, 소식의 시를 즐겨 읽고 여러 방면에서 소식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다. 그는 유배 생활을 하게 되면서 비로소 소식의 시문과 그의 위인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던 소식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소식이 경험했던 괴로운 트라우마에 정약용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는 「동류요법」의 효과를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했던 것 같다. 이를 통해 극도의 좌절과 실의에 빠져 있었을 그의 유배 생활에 정신적 위안과 희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니 이것이 바로 정약용의 시와 생활 곳곳에 소식이 투영된 요인일 것이다.

<References >

1. Byun, Hak Soo. *Literature Therapy*. Seoul: Hakjisa, 2007.
2. Cho, Kyubaek. *Su Dongpo's Influences on the Korean Literature Written in Chinese*. Seoul: Myungmundang, 2016.

66) 丁若鏞, 《與猶堂全書》 卷1.

67) 丁若鏞, 《與猶堂全書》 卷12.

3. Jeong, Yak Yong. *Yeoyoodangjeonseo*. Sinjosunsa.
4. Kim, Sang Hong. “A Study On Dasan(茶山)’s Hwasojangongdongpapa lsu”. *Paleology of East Asia* Vol.19, (2009).
5. Liu, So Jin. *A Study on Su Shi’s Influence on the Poetry of the Gaoli Dynasty and the Chaoxian Dynasty*. Beijing: Peking University, 2013.
6. Liu, So Jin. “Ancient Korean poets’ 『hesushi(和蘇詩)』”.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63, (2013).
7. Liu, So Jin. “Psychological Mechanism in Jeong Yak Yong’s(丁若鏞) Responding Poems to Su Shi’s(和蘇詩) during the Period of Exile”. *Journal of Chinese Literature* Vol.93, (2017).
8. Su Shi(Liu, Jongmok trans.&anno.). *Sushishiji translated into Korean 1*.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2.
9. Su Shi(Liu, Jongmok trans.&anno.). *Sushishiji translated into Korean 3*.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6.
10. Su Shi(Wang Wengao edition&anno.). *Sushishiji*. Beijing: Zhonghua Shuju, 1987.

< 참고문헌 >

1. 변학수, 《문학치료》, 서울: 학지사, 2007.
2. 조규백, 《한국 한문학에 끼친 소동파의 영향》, 서울: 명문당, 2016.
3. 丁若鏞, 《與猶堂全書》(1936年 新朝鮮社刊 活字本)
4. 金相洪, 〈茶山の 〈和蘇長公東坡八首〉攷〉, 《동아시아고대학》 제19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9.
5. 柳素眞, 《蘇軾對高麗及朝鮮漢文詩壇的影響研究》, 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6. 柳素眞, 〈韓國古代文人的「和蘇詩」〉, 《中國語文學》 제63집, 2013.
7. 柳素眞, 〈丁若鏞의 유배 시기 和蘇詩에 나타난 심리적 기제〉, 《中國文學》 제93집, 2017.
8. 蘇軾 著, 柳種陸 譯註, 《정본완역 蘇東坡詩集1》,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9. 蘇軾 著, 柳種陸 譯註, 《정본완역 蘇東坡詩集3》,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10. 蘇軾 著, 王文誥 輯註, 《蘇軾詩集》, 北京: 中華書局, 1987.

<Abstract>

Jeong Yak Yong(丁若鏞) took a critical viewpoint on Su Shi(蘇軾), but we can find Su Shi's reflection on Jeong Yak Yong's poetry and his life.

First, Jeong Yak Yong wrote several responding poems to Su Shi's(和蘇詩), and he used Su Shi's phrases in poems and episodes concerned with him.

Secondly, Jeong Yak Yong usually called Su Shi to mind when he took food and he emulated Su Shi to draw the landscape of his hometown.

We can say that Su Shi's reflection on Jeong Yak Yong's poetry and his life means Jeong Yak Yong revered Su Shi's poetry and his life.

I think it is a kind of identification therapy or literary healing.

Key Words : Jeong Yak Yong(丁若鏞), Su Shi(蘇軾), Responding Poems to Su Shi's(和蘇詩), Reflection, Life, Literary Healing